



지난 11월 23일 전북 익산시 한 종계농장에서 폐사한 닭이 가금 인플루엔자(AI) 양성으로 확인되자, 국립수의과대학검역원 등 관계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처음 AI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백m이 내 모든 가금류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우려가 있는 개등을 살처분하기로 하고 차단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초동 방역에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 발병 후 4일 만에 처음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또다시 폐사된 닭으로부터 AI 양성반응이 나오자 앞으로 이 지역의 AI가 다른 지역으로

도탄에 빠진 가금 산업을 살리는 길

건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정주**

확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AI 바이러스 잠복기가 3~20일 정도 되므로 이달 중순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일단 한시름을 놓을 수 있다할 것이다.

2003년 AI발병으로 학습효과가 있는 가금업계나 정부 및 민간 가축 방역기구가 정부의 AI발병 발표 이후 이미 작성된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큰 혼란 없이 단계적으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AI발병에 따른 가금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5억 원이 투입되는 생산조절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결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 AI 발생이전까지만 해도 1000원대를 유지

하던 큰 생닭 한 마리 가격이 AI발병 발표와 함께 640원까지 하락했고 거래 물량도 30% 가량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정도 변화는 2003년 AI발발 때와 비교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예전과는 달리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계란의 경우 AI발발과 함께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점에서의 계란판매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 브랜드 계란의 경우 판매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 중에서도 대기업 이미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오리고기 일본 수출로 활로를 찾아가고 있었으나 이번 고병원성 AI발병으로 연말 일본 성수기에 맞추어 준비한 수출이 중단하게 되어 신선 오리고기에서만 220만 달러 정도의 수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설설가상으로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병원성 AI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저병원성 AI의 경우 고병원성 AI와 달리 급격한 폐사가 일어나지 않고 살처분을 비롯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지만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여기저기 이동하며 분변을 뿌리고 다닐 경우 방역에 어려움은 물론 관련보도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금 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가금 산업의 시련은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익산 지역 발생 AI의 확산 방지와 함께 살처분 및 가축 이동금지에 따른 보상 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I처럼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신고가 관건이며 질병 발생지역내 가축 이동 제한, 특히 무단 반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AI 발생 신고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40~100%로 차등 지급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피해농가에 대하여 조속하고도 상응한 지원을 책임 있는 당국자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철새가 오는 지역의 닭·오리 사육농장들에 대한 예찰과 지속적인 점검은 기본이고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인근 농장의 가축이나 축산물에 대한 손실 부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3년 AI발병 때와는 달리 국내 언론들이 원색적 보도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언론의 호들갑이 여전하다는 업계의 불만도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AI관련 보도를 경쟁적으로 남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는 불만이다. 실제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조류인플루엔자 관련기사만 단 5일 동안 무려 1천건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TV보도의 경우도 과거에 촬영된 자료화면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황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금업계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언론의 사명이 국민들을 AI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있다하겠지만, 그렇다면 가금산물을 75℃ 이상으로 처리하면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언론은 가금 산물을 끓이지 않고 날 것으로 소비하지 말라는 정도의 메세지 전달이면 될 것이 아니가 싶다. 그런데 닭고기를 날로 먹을 소비자는 없을 테니 사실 언론이 조용히 있지만 하면 가금업계에는 큰 도움이 된다할 것이다. 소비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만 믿고 일부러 가금산물 소비를 기피할 것까지는 없다. 더도 바라지 않는다. 평소처럼만 행동해 준다면 그 것이 바로 도탄에 빠질 기로에서 있는 가금 산업을 살려내는 의미 있는 일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깨름칙하면 끓여 먹는 일만 잊지 않으면 된다.